



## 멀리 더 멀리 날자꾸나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노르딕복합에 출전한 이탈리아 알레산드로 피틴 선수가 22일(한국시간) 스키점프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겨여신 '연아의 유혹' 시작된다

## 내일 낮 쇼트 출전... 5조에서 아사다와 금빛 연기 대결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피겨 아이콘' 김연아(20·고려대)와 아사다 마오(20·일본)가 마침내 밴쿠버에서 첫 만남을 갖고 금메달을 향한 본격적인 대결의 서막을 올렸다.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의 우승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김연아와 아사다는 22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치러진 쇼트프로그램 연기순서 추첨식에서 마주쳤다.

김연아와 아사다가 같은 경기장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그랑프리 5차 대회 '에릭 봉파르'에서 함께 대회를 치른 지 4개월 만이다. 오랜 '피겨 친구'로서 반갑기도 하지만 지금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놓고 경쟁자일 뿐이다. 아사다와 김연아는 공교롭게도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5조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기자로 나란히 연기를 펼친다.

김연아와 아사다의 '금빛 도전'을 앞두고 피겨 팬들은 남자 싱글에서 벌어진 예반 라이사체(미국)와 예브게니 플루센코(러시아)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라이사체는 안정된 연속 3회전 점프로 수행점수(GOE)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퀴드러플 토투프-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앞세운 플루센코를 제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교과서 점프'를 앞세운 김연아의 트리플 점프와 아사다의 '필살기'인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의 대결은 남자 싱글에 이어 새로운 볼거리로 떠올랐다.

김연아와 아사다 모두 예술점수를 높게 받는 상황에서 결국 기술점수의 GOE 차이가 금메달의 향방을 바꿀 전망이다.

김연아와 아사다는 이날 연기순서 추첨에 이어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나란히 연습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두 명의 '피겨 요정'은 각각 쇼트프로그램인 '007 제임스 본드 메들리'와 '중'을 배경음악으로 빙질 적응과 점프 조율에 신경을 많이 썼다.

앞 조에서 먼저 연습에 나선 김연아는 음악에 맞춰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투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작으로 8개의 연기과제를 차례로 훑었고, 연습을

지켜보려고 경기장을 찾은 1천여명의 관중은 김연아가 연기요소를 수행할 때마다 큰 박수로 격려를 보냈다.

아사다는 김연아의 훈련이 끝난 지 1시간여 뒤에 시작했다. 전날 도착했던 만큼 빙질 적응에 나선 아사다는 음악과 함께 점프는 생략하고 스핀과 스텝, 스파이럴만 연기하며 자기 순서를 마쳤다.

빙질 과약을 마친 아사다는 더블 악셀(2회전반)을 시작으로 트리플 토투프와 트리플 토투프 등을 차례로 뛰면서 점프 감각을 끌어올렸다.

어느 정도 몸을 낸 아사다 마오는 두 차례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려다가 1회전만 돌고 내려오고 나서 연이어 4차례 연속으로 트리플 악셀을 뛰어 안전하게 착지했다.

또 마지막 트리플 악셀에서는 더블 토투프 점프를 붙이는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일본에서 트리플 악셀 훈련에 집중했다는 아사다의 말처럼 예전보다 안정된 성공률을 보였다. 김연아는 훈련이 끝나고 나서 "어제는 빙질이 좀 이상했는데 오늘은 훨씬 나아졌다"라며 "토론토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하려고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좋은 연습이었다"라고 만족스러워했다. /연합뉴스



(김연아)



(아사다 마오)

### ■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출전 주요 선수

김연아 (한국)	카롤리나 코스트너	라우라 레피스토	아사다 마오
출생 1990.9.5	1987.2.28	1966.4.25	1990.9.25
신장/체중 164cm/47kg	168cm	162cm	162cm/45kg
최근 성적	2010 ISU 4대륙 5위	2010 ISU 유럽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1위	2010 ISU 4대륙 선수권 1위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 1위	2009 ISU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1위	2009 유럽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1위	2009 ISU 4대륙 챔피언 2위
ISU 세계 챔피언 1회	2009 ISU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1위	2009 ISU 스케이팅 캐나다 3위	ISU 월드 챔피언 1회
ISU 세계 챔피언 1회	2008 ISU 월드컵 러시아 1위	2008 핀란드 챔피언 2위	2010 ISU 월드컵 팀 2위
역대 최고점 210.03* (2009 ISU 세계 챔피언, 세계신기록)	184.68** (2008 ISU 세계 챔피언)	179.07** (2009 세계 챔피언)	204.62** (2009 챔피언 선수권)
조에니 로렌초	스즈키 아키코	안도 미키	말레나 레오노바 (러시아)
1986.1.13	1985.3.28	1987.12.18	1990.11.23
160cm	161cm/49kg	162cm	159cm
2009 스케이팅 캐나다(국제) 1위	2010 ISU 4대륙 2위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 2위	2009 ISU 월드컵 2위
ISU 월드컵 3위	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 3위	2009 NHK 트로피 1위	로스앤젤레스 3위
ISU 세계 챔피언 2회	ISU 월드컵 1위	로스앤젤레스 1위	몬테네그로 1위
191.29** (2009 ISU 세계 챔피언)	2006 NHK 트로피 2위	ISU 세계 챔피언 3위	2008 ISU 세계 주니어 챔피언 1위
208.23** (2009 캐나다 선수권)	176.66** (2009 ISU 월드컵 캐나다)	195.09** (2007 ISU 세계 챔피언)	168.91** (2009 세계 챔피언)
			200.11** (2010 챔피언 선수권)

\* 국제빙상연맹(ISU) 공인 최고점 \*\* 비공식 최고점 ※ 세계 챔피언 ISU 신장 및 21일 현재 기준

## “연아의 목표는 금... 준비는 끝났다”

### 오서 코치 확신

“김연아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다” 김연아(20·고려대)를 지도하는 브라이언 오서(48·캐나다) 코치는 '피겨퀸'의 금메달을 확신했다.

오서 코치는 22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치러진 공식연습을 끝내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동계올림픽의 목표는 물론 금메달이다. 김연아는 모든 준비가 됐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김연아에게 항상 메달을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연기를 펼치도록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라고 충고하고 있다”라며 “최상의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아무도 김연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아의 준비 상태에 대해선 “아주 좋다. 일단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내 역할은 김연아에게 계속 열정을 불어넣고 동기 부여를 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서 코치는 “지난해 12월 그랑프리파이널 이후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 것은 없

다. 다만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과 김연아가 연기와 안무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며 “더불어 새로운 갈라쇼 프로그램도 함께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서 코치는 김연아가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것에 대해 “마치 다이아나 황태자비와 함께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라며 “김연아는 팬들을 존중하고, 팬들도 김연아를 사랑한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연합뉴스

## ‘2관왕’ 이정수 포상금 얼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쇼트트랙 황제 이정수(21·단국대)가 1억원이 넘는 목돈을 받을 전망이다.

남자 1천500m에 이어 1천m에서도 우승한 이정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시 장려금 5천만원을 받는다.

공단은 연금 점수 110점을 채우면 월정 최고액인 100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준다.

총 점수가 110점을 넘거나 가중치가 큰 올림픽 금메달(연금 점수 90점)을 따면 110점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월정 최고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한 대회에서 여러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 연금점수 90

점에 가산점 20%를 더한 금액을 10으로 나눈 뒤 500만원을 곱해 일시불로 준다. 대회가 다가 경우엔 90점에 가산점 50%를 더한 금액을 10으로 나눠 다시 500만원을 곱한다.

2관왕에 오른 이정수는 금메달 연금 점수 90점에 또 한개의 금메달을 보았기에 20%인 18점이 더해진 108점을 확보했다. 이를 10으로 나누면 10.8이 되고 소수점 아래를 뺀 10에 500을 곱해 일시장려금으로 5천만원이 책정됐다.

남은 500m와 5천m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보탠다면 1억원을 더 챙길 수 있다. 금메

## 월 100만원 연금은 기본 1억원 이상 목돈 포상금

달 3개로만 버는 일시 장려금이 1억5천만원에 이른다.

2006 토리노 대회 5천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이호석(24·고양시청)은 이미 연금점수 90점을 확보했고 금메달 1개만 보태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딴 것이기에 50% 가산점인 45점을 합쳐 총 135점을 얻는다.

이를 10으로 나눈 13.5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10을 곱하면 일시장려금이 6천5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이번 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 4천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2천만원과 1천2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연합뉴스